

접경지역 근·현대 역사문화 경관 특성과 활용방안 연구

- 철원을 중심으로 -

함성언*, 윤영조**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조경학과 석사과정, **강원대학교 생태조경디자인학과 부교수

1. 서론

접경지역¹⁾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 이남 20km 이내 인천, 경기, 강원도의 15개 시, 군이 접경지역의 대상이 되며, 이에 따라 강원도는 춘천시와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총 6개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다. 2018년에는 강원도가 도내 접경지역 5개 군(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을 ‘평화지역’으로 선언하고 전쟁, 분단, 소외의 이미지가 강한 ‘접경지역’이라는 용어를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다(강원도 평화지역 선언). 철원지역은 한반도 중심부에 위치하여 궁예의 태봉 건국 이후 조선,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지정학적 측면에서 전략적 요충지, 남북축의 교통 및 물류의 중심지로 번성하였다.²⁾ 한국전쟁 이후 비무장지대의 설치로 일부 지역의 접근이 제한되었으나 현재는 안보관광, 생태자원 등의 보고로 여겨지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부터 현대까지 철원군 일대 역사문화 경관자원의 재조명을 통해 그 특성을 파악하고 활용방안을 제안하여 향후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지역으로 이어지는 강원도 평화지역 근·현대 역사문화 경관 벨트 개발을 위한 기초 과제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2.1 연구범위

연구는 일본의 조선 침탈과정 중 하나로 건설된 철원역이 개통된 1912년부터 해방과 분단, 한국전쟁과 정전을 거쳐 군사분계선이 고착된 2022년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고 공간적 범위는 일제강점기 이후 행정구역상 철원으로 명기된 범위로 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철원을 대표하는 상징적 역사 경관으로 옛 경원선 철도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철원읍 관전리, 사요리, 중리, 월하리 지역과 동송읍 이길리, 김화읍 생창리와 읍내리 및 한국전쟁 이후 수복되어 1960년대 이후 건설된 공공기관, 상업시설, 주택 등이 밀집하여 근·현대사적 변천상을 확인할 수 있는 철원읍 화지리와 갈말읍 일부를 포함하였다.

2.2 연구방법

연구대상지의 변천 과정과 사료적 근거의 수집을 위해 문헌 조사를 진행하고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일제강점기 동안의 언론보도 등 사료 및 기존 철원지역 관련 연구자료 및 연구보고서를 활용하고 철원군과 정부 발간 문서를 추적하여 수집하였으며, 철원과 연결된 지역과 유사한 연구가 진행된 지역의 문헌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병행하였다. 민통선 안쪽에 산재한 등록문화재와 건물터, 경원선의 주요 역사와 노선이 경유하는 철원읍과 동송읍, 김화리 일대를 중심으로 철원의 서쪽(대마리)에서 동쪽의 화천군 경계(김화읍 일대)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해당 지역에 정착하여 철원의 역사적, 문화적 경관 변화에 대한 경험과 기억을 가진 주민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고 내용을 분석하여 표로 제시하였다. 조사 및 분석된 경관자원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자원 간 연계 이용 거리와 수단을 구체화하여 효율적 이동방안을 제안, 관광 패턴의 다변화를 통한 관광 수요 창출과 접경 마을의 특성화 유도, 마을 특색화를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³⁾ 등 다양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접경지역으로서의 철원의 과거와 현재

철원지역은 서기 901년 궁예가 마진을 세우고 태봉으로 개칭한 후 고려 태조(919년)에 동주로 개명하였으며 1434년 경기도에서 강원도로 이관되고,

- 1) “접경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이하 “민간인통제선”이라 한다) 이남(以南)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을 말한다(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정의)).
- 2) 철원읍 소이산 정상에는 고려시대 제1로 봉대가 위치하고 있었으며 조선시대에도 직봉(直烽)봉수로 중요하게 취급되었다. 1912년에는 당시 식량 기지로서의 가치가 높았던 철원군의 곡물 운송을 위해 경원선 철원역이 개설되었으며 1924년에는 금강산전기철도가 개통되어 동서 연결의 주요 지점으로 사용되었다.
- 3) 2022년 현재 철원지역은 도시재생뉴딜사업 3개소(철원읍 화지리 일대(2018년 선정), 근남면 육단리 일대(2020 선정), 갈말읍 신철원리 일대(2020 선정))와 도시재생예비사업 1개소(서면 자들리 일대(2021년 선정)) 등 총 4개소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 중이다.

1896년 강원도 철원군이 되었다. 1930년대에는 당시 춘천, 원주, 강릉과 견줄만 한 규모의 강원도의 주요 도시로 번성한 지역이다. 특히 용산-원산 간 경원선과 철원-내금강 간 금강산전기철도가 부설되며 본격적인 성장기를 맞게 되었으며, 이때 개설된 철원역사는 근대 철원 부흥의 상징적 건축물이었다. 김화지역 또한 금강산전기철도를 활용한 광물 자원의 물류 기지와 서울-춘천 간 주요 이동 경로로 활용되며 교통의 요지로 성장했다. 이 시기 각종 사회간접시설과 상업공간, 문화시설 등이 건설되며 번성하였고, 1973년 발행된 철원읍지에 따르면 철원읍은 철원역을 비롯, 교육기관 5개교, 금융기관 4개소, 일반행정기관은 철원군청을 포함하여 34개 기관, 유흥접객업소는 103개소에 달하던 대읍도시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철원군의 번영은 곧 수탈과 착취의 역사와도 이어지며, 철원역은 식량자원의 수탈기지로, 금강산전기철도는 태평양전쟁 당시 광물 운송용으로 활용되었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북위 38° 선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분할됨에 따라 철원군 전역이 공산 치하에 들어갔다가 한국전쟁 발발 후 강원도 최대의 곡창지대를 놓고 남북의 치열한 격전이 벌어지면서 번성했던 철원은 그 흔적만 남아, 현재는 당시의 역사문화 경관자원 대부분은 민통선 내 등록문화재로 관리되고 있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일부 지역이 수복되었으며, 1963년 김화군이 철원군에 편입되며 현재의 행정구역이 완성되었다. 아울러 한반도 비무장지대 전장 249km 중 약 30%에 해당하는 70km가 철원군을 관통하며 남북이 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2022년 현재 철원군 인구는 42,174명으로 1930년 김화군과 철원군이 각각 92,622명과 80,479명이었던 것에 비해 70% 이상 감소하였으며, 철원읍의 경우 2022년 기준 5,224명으로 1930년의 15,458명의 30%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3.2 근·현대 역사문화 경관의 특성과 활용실태

철원의 근·현대 역사문화경관은 대부분 민통선 이북에 위치하여 민간인의 접근이 용이치 않아 지역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철원읍 구시가지인 외촌리, 사요리, 관전리, 중리, 월하리 가운데 사요리는 노동당사와 소이산을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어왔고, 2022년 철원 역사문화공원이 개설되며 철원군의 주요 관광지가 되었다. 외촌리의 경우 2009년 구 철원읍 시가지 내 역사문화경관과의 연계를 목적으로 근대 문화유적센터를 설치했으나 민통선 내에 위치하여 그 활용 실적은 미미하다. 관전리, 중리, 월하리는 경관 유산이 대부분 유실되어 문헌과 주민 인터뷰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발굴이 필요하다. 기존 철도 노반은 대부분 농로로 활용되고 있고, 노선 인근의 건축물 등 경관 유산은 교량이나 건물의 기초 구조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활용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60년대 이후 조성된 정연리, 이길리, 마현리, 유곡리, 양지리 등 정착촌(민북마을)의 경우 주민 인터뷰 등을 통해 인문 사회학적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나 실제 거주 중인 주택 등의 경관자원을 활용한 연구는 미미하다. 또한 ‘전후 한수 이북 첫 블럭 주택’이라는 주민 인터뷰가 남아있는 화지 7리 일대의 초기 주택단지 역시 사용 실태와 보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지역은 60년대 이후 대북 선전용이나 민통선 인근 개간을 통한 외부인의 정착을 목적으로 거의 같은 시기에 조성된 마을로 당시의 생활상을 유추할 수 있는 건축물이 집합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철원 동쪽 지역의 금강산 전기철도 노선과도 밀접하게 연계되므로 정착촌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은 제기된다. 이길역과 정연역, 유곡역, 금곡역을 거쳐 김화역으로 이어지는 금강산 전기철도 노선과 노반은 대부분 현재 농로로 활용되고 있으며, 철도 교량의 경우 일부 체험관광이 가능한 상태이며 지역의 위치 인근에 정착촌이 조성되어 있다.

4. 결론

철원군은 역사적, 지형학적으로 한반도 역사의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며 이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철원군의 역사문화경관의 특성을 형성하게 되었다. 현재 민통선 내에 분포하고 있는 주요 근·현대 역사문화경관은 그동안 다양한 유형의 대안을 찾는 노력을 경주했으나 정치, 군사적 이유로 민간인의 접근이 용이치 않아 산재한 경관자원의 연계를 통한 핵심 관광 자원화, 미래 유산으로서의 가치 제고에는 한계가 있었다. 철원군의 서쪽에서 동쪽까지 이어지며 분포하는 근·현대 역사문화경관은 각각의 개별적 가치뿐 아니라 철원군 전체를 가로질러 연결하는 벨트로서의 가치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자원이다. 그러므로 현재 철원군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테마관광 사업과 근·현대 역사문화 경관을 연계하기 위해 옛 경원선과 금강산 전기철도 노선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 농로로 활용되고 있는 철도 노선과 출입이 제한된 교량 등의 개보수를 통해 근·현대 역사문화 경관 탐방로 개설과 마을간 연결 등이 구체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민통선 내 등록문화재와 기타 건물터, 구 철원읍의 흔적 등의 직접 조사와 주민 인터뷰를 통해 역사문화 경관의 추정적 발굴을 시도하였으나 민간인의 접근이 어려운 군사지역, 지뢰매설지역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향후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접근 여건이 개선을 통해 추가적인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철원군의 근·현대 역사문화경관의 새로운 미래 가치를 발견하고 향후 평화 정착 시기에 활용 가능한 기초 자료로서 의의가 더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지나, 조경진, 박한솔(2017) 구철원 시가지의 장소기억 재구성. 국토연구 93: 105-125.
2. 김창환(2015) DMZ 사라진 마을 인문학적 복원. 행정자치부.
3. 서영애, 박한솔(2019) 금강산전기철도에 의한 철원지역 근대 경관과 흔적. 한국경관학회지 11(2): 34-49.